전호근 <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

11강 법 바깥에서 노닐다 Ⅰ: 방내와 방외

1교시 방내(方內)의 사람과 방외(方外)의 사람

오늘은 장자 내편 칠편의 응제왕편인데, 지난번에 대종사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무리 못했고 그 부분의 내용이 꽤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대종사편의 네 번째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응제왕으로 넘어가려합니다. 응제왕편의 내용이 짤막하기 때문에 둘 다 소화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대종사편 네 번째 이야기의 개요

우선 지난시간에 이어서 대종사편의 네 번째 이야기를 보겠는데, 거기서 방내(方內)와 방외(方外)가 나온다. 방내지인(方內之人), 방외지인(方外之人) 인데, 이때 방(方)은 법(法)을 뜻합니다. 여기서 법은 세속의 법입니다. **방내지인(方內之人)은 세속의 가치규범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며 공자(孔子)와 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이 등장하고, **방외지인(方外之人)은 세속적인 가치, 법 바깥에서 노니는 사람**, 소요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상호(子桑戶), 맹자반(孟子反), 자금장(子琴張) 등이 있습니다. 세속의 법대로 기준을 이야기하면, 친한 벗이 죽으면 곡을 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세상의 예법이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친구였고 자상호가 죽으니까 맹자반과 자금장은 노래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자상호는 도의 세계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변해서 도의 세계로 가지 못한 자신들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공이 충격을 받아서 공자에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묻자, 공자가 방내와 방외라는 말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 자상호(子桑戶), 맹자반(孟子反), 자금장(子琴張) 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죠.
네 번째 이야기 방내의 사람과 방외의 사람이 주제인데요. **"자상호(子桑戶), 맹자반(孟子反), 자금장(子琴張), 세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말했다."** 자상호에 대해서는, 논어 옹야편에 자상백자(子桑伯子)가 나옵니다. '蕩'간단한 행동, 간이한 행동, 삶을 가볍고 간단하게 사는 사람인데, 자상백자라는 의미로 표기가 되고 이 둘이 같은 사람인지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상백자가 자상호라면 호칭이 좀 달라져야 할텐데, '상호'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꼭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의심스럽습니다.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자상백자의 행동이 아주 간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장자 대종사편에 나오는 자상호라는 사람의 행동과 유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맹자반(孟子反)도 논어에 보면 맹지반(孟之反)이라고 나옵니다. 아들 자(子)와 갈 지(之)가 모두 사람

www.artnstudy.com

의 자에 붙거나 이름 사이에 붙는 어조사로 쓰이면서 맹자반이나 맹지반으로 불리는데, 논어에서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가 패주할 때 맨 뒤에서 서서 후퇴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쟁 중 진격할 때는 맨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후퇴 할 때는 맨 뒤에 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용감하다, 그런데 맹지반은 맨 뒤에 서서 후퇴하면서 마지막에 성에 도달해서는 갑자기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말이 달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쳐진 것이라고 자신이 용감하다는 것을 일부러 감춘다. 그런 대목에서 맹지반이란 사람이 나오니까 사실은, 장자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법 바깥에서 노니는 사람이라고 할만한 단서가 논어에 기록돼 있다고 봐야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용감한 행동을 했노라고 자랑 할텐데, 맹지반은 반대로 했으니 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법 바깥에서 노니는 사람의 면모가 있는 것이죠.

자금장(子琴張)에서 금장이라는 사람은 맹자에 나옵니다. '금장,목피,전석' 해서 금장이라는 사람과 목피(牧皮)라는 사람과 전석(篆晳), 전석은 공자의 제자 전삼의 아버지입니다. 맹자는 이 세 사람을 광자(狂者) 즉, 미친 사람, 미친 선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 바깥에서 노는 면모와 유사한 점이 있죠. 그리고 전석이라는 사람은 예기에 보면, 노나라 귀족인 계무자가 죽었을 때, ' 의기문이가' 라고 해서 그 집 문에 기대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노래한 사람이니까 장자 이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절친한 벗이 죽었는데 노래한 행동으로 유명하니까 금장이나 목피나 전석이나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대략 논어와 맹자와 장자를 뒤섞어서 보면 여기 나오는 자상호는 자상백자인 것 같고 맹자반은 논어의 맹지반인 것 같고 자금장은 맹자에 나오는 금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광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장자 대종서편의 네 번째 이야기 부분입니다.

▲ 삶을 잊어버리는 영원한 사귐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은 서로 사귀면서 말했다. 누가 서로 사귐이 없는 것을 서로 사귀는 것으로 여기며, 누가 서로 도와줌이 없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 돌봄, 관심으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것을 사귀는 것으로 여기고, 또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 때로는 관심과 배려와 스킨쉽 같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각별한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냥 놔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런 면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기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듬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태도를 도와주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가 하늘에 올라 안개 속에 노닐어서", 이건 상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구속을 벗어나서 장자가 보기에 세상에 발을 딛고 거기에 의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소유하는 상태를 비유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없이 넓은 세계에서"**, 이를테면 연못이나 작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강이나 바다 같은 큰 물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서 생을 잊고 끝나고 다하는 바가 없게 할 수 있는가?"**, 생(삶) 자체를 잊어버려야 무한히 넓은 세계를 노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삶 이전에 삶이 없었던 때가 있고 삶 이후에 다시 삶이 있을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삶이라는 것은 무한의 시간 속에서 순간이니까 오히려 삶을 벗어나는 것이 영원한 삶일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결국 사귀지 않는 사귐, 도와주지 않는 도움, **삶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삶을 얻는 사귐**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www.artnstudy.com

▲ 막역(莫逆) -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조건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웃었다는 건 뜻이 통한 것입니다. **"각 자의 마음에 거스르는게 없게 되어 "**, 이런 걸 막역지우(莫逆之友)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스름이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사소통에서 장자도 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죠. 예를 들면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혜시조차도 장자를 보고 대이무용(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다)이라고 그랬죠. 크다는 말은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쓸모가 없다는 말로 장자를 비판했는데, 장자도 소통이 제대로 안된다는 걸 느끼고 커다란 나무의 고사를 이야기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장자인데, 실제로 소통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막역한 마음이 없으면 소통은 근본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서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일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언어만으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경우를 보면, 중국어를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합니다. 그렇게 소통 할 수 있는 것은 의학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믿고 상대방과 함께 하겠다는, 공존을 추구하는 넓은 마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더 잘 통했다면 도리어 더 의심이 많고 상대방의 말을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됐을 수도 있죠.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막역'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 각 자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없게 되어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 벗이 된 것입니다.

▲ 자상호(子桑戶)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금장과 맹자반

그러고 나서 **" 아무 일 없이 얼마 지난 뒤 자상호가 죽어서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장이란 것은 매장입니다. 장(葬)자는 위에도 풀이고 아래도 풀이어서 사람의 시신을 땅 밑에 묻는 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인데, 매장하기 이전에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공자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공자와 약간의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자공을 보낸다. **"자공으로 하여금 일을 도와주게 하였다."** 자공은 공자 제자 중에서 안현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덕행에 자공 민자건, 염백우, 중공 이렇게 네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자공이 2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세속적 의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자공을 들 수 있는데, 세속적 가치에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된 게 자공이고, 노나라, 제나라, 위나라의 제상을 역임한 게 자공이고 하니까 등장시킨 듯합니다. 자공으로 일을 도와주게 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가보니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한사람은 거문고를 타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 아 상호(桑戶)여!, 아 상호(桑戶)여! 그대는 이미 참된 세계(도의 세계)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살아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마치 한스러워하는 듯한 내용이죠.

▲ 예(禮)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

자공으로서는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자공이 종종걸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말했다. 감히 묻겠습니**

www.artnstudy.com

다.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하는 것이 예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 예의 본 뜻을 알겠는가?" 예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자공이 말한 예라고 하는 것은 형식화, 규격화된 예이고, 맹자반과 자금장이 한 예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는 본래의 정서, 예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정을 표현하는 형식 중의 하나인데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공이 볼 때 그것은 예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되고 충격을 받은 자공은 공자에게 돌아와 얘기합니다.

▲ 방황(彷徨)과 소요(逍遙)

"자공이 돌아와 이 이야기를 공자에게 아뢰면서 말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법에 맞는 행동은 하나도 없고 자공이 보기에 세속적인 가치, 예에 맞는 것은 전혀 없고. **"생사를 되외시하여 ", 죽고 사는 것을 죽었다고 슬퍼하고 태어났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방내와 방외의 이야기를 한다. **"공자가 말했다. 저들은 예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니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방내의 사람들). **테두리 밖과 안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데**(방내와 방외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조문하게 했으니 나야말로 생각이 얕았다.**(기준이 다르다) **저들은 바야흐로 조물자와 벗이 되어 천지 사이에서 노닐고 저들은 삶을 쓸데없이 붙어있는 사마귀정도로 생각하고 죽음을 종기가 터지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 그 같은 사람들이 또 어찌 사생과 선호의 소재를 알려고 하겠는가. 다른 사물을 빌려와 한 몸에 의탁하여 간과 담을 잊어버리며 귀와 눈의 감각을 없애서**(놀람이나 호오 같은 감정을 없애서) **생과 사를 되풀이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다. 무심히 티끌과 때에 오염된 세속 밖에서 이리 저리 노닐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에 소요하니."** 여기서 방황이니 소요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본래 방황과 소요는 소요유편에 나온다. 소요유편의 말미에 혜시가 장자보고 쓸모없는 커다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큰 나무를 잘라서 쓸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같으면 나무 곁에서 방황하여 이리저리 거닐라고 합니다.

무하유지향광막지야 (無何有之鄕廣莫之野)하고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아득히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방황후무위기측 (彷徨後無爲基側)하며	그 나무 곁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방황하여
소요호침와기하 (逍遙乎寢臥基下)하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라.

여기서도 방황과 소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상호나 맹자반이나 자금장같은 사람들이 노니는 방외의 세계는 장자가 소요유편에서 이야기한 '무하유지향광막지야(無何有之鄕廣莫之野)의 경지'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요유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 내용을 구성한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교시 대통의 세계에 접하다

www.artnstudy.com

▲ 세속적 가치의 죽음의식 - 문화행사로서의 장례

"방향호진구지외(彷徨乎塵垢之外)하며", 진구(塵垢)는 티끌이죠. 티끌 바깥에서 방황, 이리저리 노닐며. **"소요호무이지업(逍遙乎无爲之業)이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무이지업)을 하니(소요). **"위세속지예(爲世俗之禮)하야 이관중인지이목재(以觀衆人之耳目哉)리요"**, 어찌 저들이 또 번거롭게 세속의 예의 갖추어서 중인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하겠는가?, 관(觀)은 감상거리를 의미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관국지광(觀國之光)'은 그 나라의 문물을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식)가 일종의 문화적인 관람 가치가 있는 문화 행사가 되는 것이 관(觀)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재(哉)는 ?,!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맹자에 보면 문공이 삼년상을 치르니까 내관자(來觀者), 사방에서 찾아온 구경하는 사람들이 상을 치루는 사람들의 슬퍼하는 기색을 보고 흡족해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문화 행사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대한 의식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세속의 가치일 뿐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방내와 방외의 연결지점이었던 공자

그러자 자공이 공자의 뜻을 묻는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세계에 의지하시렵니까?", 바로 이 질문 자체가 장자가 보기에 **공자는 방내와 방외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에게 자공이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은 공자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자는 방외에 있는 사람일텐데, 방외에 있는 자신이 누구를 통해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인간세편에서 공자와 안현의 대화를 통해서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형륙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버려졌다는 뜻이다. 하늘의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그대와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형륙을 받아서 하늘에서 버려졌지만 나는 자네와 함께 방외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방외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이 그러합니다.

▲ 잊고 사는 것의 의미

자공이 말했다. "감히 그 방법을 여쭙습니다.",방내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라면 자공이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방내의 세계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물고기는 함께 물에 나아가고 사람은 함께 도에 나아간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편안하고, 사람은 도 속에서 편안하다. "함께 물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연못을 파주면 넉넉히 기를 수 있고, 함께 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간섭하는 일이 없으면 삶이 안정된다."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이 때로는 월권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공자가 말한 월권에 대한 경계와 끊임없는 강조를 보면 장자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죠. 간접하지 않으면 삶이 안정된다. "그 때문에 **'물고기는 강과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잊고, 사람은 도술(道術)의 세계에서 서로 잊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강과 호수는 큰 물, 깊은 물이다. 그 물속에서 물고기들은 서로를 잊고 자유롭게 유유자적하고 사람은 큰 도술의 세계에서 서로 잊고 살 수 있다. 장자가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상황을 같이 염두해 둬야 합니다. 장자는 소요하고 방황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없이 방황하고 잠깐 동안 낮잠 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국시대에 유용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무를 베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치고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해치는 상황을 두고 낮잠 자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커다란 도의 세계에서 잊고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전국시

www.artnstudy.com

대의 억압적인 상황을 염두해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 기인(畸人) - 하늘의 군자이며 인간 세계의 소인

자공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기인(畸人)에 대해 여쭙습니다." 여기서 기(畸)자는 뙈기밭이죠. 밭이 있으면 측량 가능한 네모반듯한 농토가 아니라 한쪽에 따로 떨어져서 측량하기 쉽지 않고 일반적인 논밭이 아니라서 토지를 분배할 때 정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뙈기밭이다, 뙈기밭과 같은 존재가 기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자상호, 자금장, 맹자반 같은 사람이 기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인이란 세속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세속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데 기인은 그 기준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혜시가 커다란 나무를 두고 가지가 구불구불해서 목줄을 댈 수 없고, 뿌리도 울퉁불퉁해서 곱자나 그림쇠를 댈 수 없다고 했는데, 세속의 가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상호, 자금장 , 맹자반이란 것이다. 세속의 가치로 보면 절친한 벗이 죽었을 때 마땅히 울고 슬퍼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세속의 기준과 맞지 않은 것이다. "하늘과는 비슷하다." 자연과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죽었다고 특별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죽은 것이나 사람이 죽은 것이나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죠. "그 때문에 '하늘의 소인은 인간 세계의 군자이고 하늘의 군자는 인간 세계의 소인이다.'고 말한다." **하늘의 소인은 자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슬퍼하고 그 순간을 잠시라도 연장하기위해 애를 씁니다.** 죽음의 의식 속에 그런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별을 늦추려는 노력은 병원에도, 사람을 매장하는 의식이나 화장하는 의식에도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늦춰보고 연결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의 변화를 가로막는 소인 같은 행동이다. 하늘의 소인은 인간 세계의 군자이고, 인간 세계의 군자는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볼까 하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의 정서에는 부합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늘의 군자는 인간 세계의 소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으면 인정머리가 없는 인간이 되니까 인간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인이 된다. 자상호, 자금장, 맹자반이 도의 입장에서 인간세계, 세속의 기준과는 다르게 서로 벗으로 사귀고 추모방식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공자는 방내와 방외라는 말로 이야기한 것이다.

▲ 도가의 '좌망(坐忘)'과 유가의 '정좌(靜座)'

좌망(坐忘)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뜻하는데 도가의 수양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수양법은 비슷한 게 많은데 불교에서는 좌승(坐繩)도 있고 누워서 하는 와승(臥繩)도 있습니다. 유가에서는 성리학자가 했던 정좌(靜座)수양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양법(= 수행법)이 고요히 앉아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다만 도가에서는 망(忘),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유가에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성(惺惺)한 상태의 집중과 몰입으로 표현되는 완전하게 깨어있는 밝은 상태를 요구한다. **도가는 완전하게 모든 걸 잊어버린 상태, 유가는 완전하게 깨있는 상태입니다.** 좌망의 이야기에는 유가식의 학문이라고 하는 공부방법(學)과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道)를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역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學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고 道는 하나하나 잊어버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좌망과 반대되는 말로 좌치(座馳)라고 하는데 몸은 멀쩡히 앉아 있지만, 정신은 막 치닫는 것입니다. 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좌망은 조용하게 마음이 거울처럼 물처럼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좌치는 몸은 앉아 있지만 온갖 정신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정신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www.artnstudy.com

것을 흔들리지 않고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미워지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피곤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잡히질 않아서, 치닫는 것입니다. 다른 욕망이 개제돼 있는 것이다. 좌망은 망각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의와 예악을 잊고 좌망의 경지에 도달함

안회가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배움에 더 진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중니(공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仁義를 잊어버렸습니다." 인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의에 가 있으면 인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중니가 말했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아직 더 나아가야할 경지가 있다는 것). 다른 날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중니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禮樂을 잊어버렸습니다." 군자가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예능, 길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악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인의예악 '이다. 중니가 말했다. "좋긴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이것은 의외죠. 예악은 일정의 형식을 가진 것이고 인의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유가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의가 더 중요하고 예악은 인의를 표시하는 형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예악이 더 잊기 어려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중니가 말했다. "무슨 말이냐?" 안회가 말했다. "저는 坐忘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니가 깜짝 놀라 얼굴빛을 고치면서 말했다. "무엇을 좌망이라 하는가?" 안회가 말했다. "사지백체(四枝百體)를 다 버리고" 사지는 팔다리고 백체는 온 몸을 말합니다, **"耳目의 감각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를 떠나고 지각작용을 없애서 대통의 세계와 같아졌을 때, 이것을 坐忘이라 합니다."** 대통(大通)은 대동(大同)과 같은데 모든 사물과 다 동등해지는 경지입니다. 만물을 다 자신과 같고 대등하게 여기는 경지죠.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응제왕편에 마지막 인물로 나오는 혼돈(渾沌)입니다. 혼돈은 이목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에서 비롯되는 감각욕망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중니가 말했다. "大通의 세계와 같아지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게 되며", 좋아하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호오도 사라지는 것이죠.

▲ 뛰어난 안회에 대하여

"큰 도의 변화와 함께하면 집착이 없게 되니, 너는 과연 현명하구나." 여기서는 '과기현호(果其賢乎)인저'라고 되어 있지만 논어에는 공자가 안회를 칭찬하는 장면은 상투적일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나는 청컨대 너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논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공이 안회보다 못하다는 것을 공자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자공이 안회를 칭찬하니까 공자가 스스로 나와 너는 안회만 못하다 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자공은 항상 방인(方人), 여기서 방은 견준다는 뜻의 비(比)로 자신을 남과 견주는데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견줍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너와 안회를 견줄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자공이 대답기를 내가 어찌 안회와 견주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모두)을 알고(問一知十) 자기는 겨우 두 개를 안다(問一知二)고 대답합니다. 공자는 '오여여불여야(吾與汝不如也)', 나는 네가 안회만 못함을 인정하겠다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자신과 안회는 그만 못하다고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장자는 안회계열의 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태염이나 광마력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다.

www.artnstudy.com

좌망은 일체의 감각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대통의 세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응제왕편의 혼돈설화를 살펴보죠.

www.artnstudy.com